

'검도 명문' 광주 서석고 통합단체전 우승



서석고 검도팀. 앞 줄 왼쪽부터 김민수·임우찬·이승준·이종한·조도현·정우진, 두번째 줄 왼쪽부터 임지문·김영은·안태준, 세번째 줄 왼쪽부터 남태운 코치, 이강산 감독, 최성훈 심판장, 김종덕 중고연맹회장, 이진종 지도위원, 윤삼중 중고연맹부회장.



서석중 검도팀. 앞줄 왼쪽부터 조정훈·서규원·황지환·이운성·이정환·강현우, 뒷줄 왼쪽부터 오상은 코치, 윤삼중 부회장, 이진종 지도위원, 김종덕 회장, 최성훈 심판장, 이재경 부장. <광주시 검도회 제공>

회장기대회 결승서 해룡고 제압... 서석중은 중등부 단체전서 3위

광주 검도의 명문 서석고가 전국 대회 통합단체전에서 정상에 올랐다. 서석중학교는 단체전 3위에 올라 올시즌 전망을 밝혔다. 9일 광주시 검도회에 따르면 서석고는 최근 경

남 창녕군민체육관에서 열린 제4회 대한검도 회장기 전국 중·고검도대회 고등부 통합단체전 결승에서 해룡고(전남)를 5-2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석고는 8강전에서 충북공고를 3-2로 제압하고 여세를 몰아 준결승에서 광명고(경기)를 4-1

로 따돌리고 결승에 진출했다. 서석고 안태준(3년)은 고등부 3학년 개인전에서 3위에 올랐다. 서석중학교는 같은 대회 남자 중등부 단체전에서 3위를 차지했다. 서석중은 4강전에서 학생중(강원)에 1-2로 석패했다. 8강전에서는 형남중(경북)을 4-1로 꺾는 등 선전했다.

서석중 이운성(3년)은 남자중등부 통합개인 4강전에서 광명중(김상운)에 판정패함으로써 3위에 머물렀다. 개인상 부문에서는 이강산(서석고) 부장이 우수부장상, 남태운(서석고) 감독은 우수감독상, 나훈일(신창검도관장) 심판은 우수심판상을 받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근대5종 초등부 출전선수 전원 금메달

마산초 송현서 2개 대회 연속 우승 광주, 학생연맹대회서 금 4·동 5

광주 근대5종 선수들이 9일 해남수체육관에서 막을 내린 제23회 한국학생근대5종연맹대회에서 금메달 4개와 동메달 5개를 획득했다. 초등부는 출전 선수 전원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미산초 송현서는 여자초등부C(5.6학년부) 2중 개인전에 출전, 수영 277점(1분0초61·1위) 육상 236점(2분54초23·3위)으로 513점을 기록했다.

송현서는 안효겸(월계수클럽·510점), 안유란(중리초·497점)을 제치고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송현서는 지난달 제40회 전국근대5종 선수권대회 초등부 6학년부(2중) 우승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2개 대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했다. 여자초등부A(1,2학년부) 2중 개인전에서는 효덕초 김우솔이 수영 146점(2분12초38) 육상 126점(4분44초97)을 기록해 272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남자초등부C 2중 단체전에서는 광주연맹 김은우(효덕초)·양우준(운암초)·전태주(미산초)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양우준이 504점(수영 266점·육상 238점), 김은우가 497점(수영 265점·육상 232점), 전태주가 479점(수영 262점·육상 217점)을 기록하면서 1480점이 된 광주연맹은 월계수클럽(1278점), 동송초(1005점)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광주연맹 초등부 선수들은 출전선수 모두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뒀다. 특히 송현서는 2개 대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하며 근대5종 유망주로 주목을 받았다. 여자중등부에서는 광주체육중이 릴레이 1위에

올랐다. 한소마·진유빈·한다인이 호흡을 맞춘 광주체육중은 수영 241점(3분19초98) 레이저런 512점(19분48초07)으로 753점을 기록, 경기체육중(742점), 서울체육중(682점)을 밀어내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체육중은 여중부 근대3종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광주체육중은 남중부릴레이, 남중부근대3종 개인·단체전에서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다. 근대3종 단체전에서는 양우승, 신명오(881점), 김은수(847점), 전태환(748점)의 기록을 합산한 3371점으로 서울체육중(3481점)과 전남체육중(3432점)에 이어 3위에 올랐다. 광주체육중은 여고부 릴레이에서 동메달을 기록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양궁 국가대표 신안서 도쿄올림픽 전지훈련

자은도 환경, 대회 개최지와 비슷
15~22일 햇빛·바람 등 적응훈련

양궁 국가대표 선수단이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신안 자은도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한다. 대한양궁협회는 9일 "박채순 총감독을 비롯한 선수단 14명이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신안 자은도에서 마지막 실전 훈련을 실시한다"며 "코로나19 상황으로 국제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여건과 야구장 소음훈련 등 기존의 특별훈련 미실시 한계 점을 극복하기 위해 선수 간 모의 실전방식 훈련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국가대표 선수단은 신안을 훈련지로 택한 것은 입지조건 때문이다. 자은도 환경이 도쿄 올림픽 양궁대회가 열리는 우메노시마 공원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선수단은 자은도에서 햇빛과 바람의 방향, 강도 등 환경 적응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훈련에는 치열한 국내 선발전을 뚫고 도쿄 올림픽 대표로 선발된 오진혁(현대제철), 김우진(청주시청), 김제덕(경북일고), 강재영(현대모비스), 장민희(인천대), 안산(광주여대)이 참가한다. 선수들은 개인별 기술점검 및 자세 완성도를 갖춰 슈팅 루틴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약조건 하에서의 경기 감각을 숙지하고, 실전에 방불하는 올림픽 경기방식의 개인·단체전 모의 훈련을 통해 흔들림 없는 멘탈 구축 등 개인별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2021 도쿄올림픽에서 전종목 석권에 도전하는 양궁 국가대표 선수단이 신안 자은도 전지훈련을 앞두고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수정 여자감독, 송철석 여자코치, 안산, 장민희, 강재영, 오진혁, 김우진, 김제덕, 정재현 남자코치, 홍승진 남자감독, 박채순 총감독. <대한양궁협회 제공>

광주시청 여자양궁팀 감독을 맡고 있는 박채순 국가대표 총감독은 "한국 양궁의 경기력은 단연 세계 최강이다. 이번 총의 훈련으로 99%의 경기력을 갖춘 선수들이 단 1%의 변수인 환경적 요인마저 극복, 최상의 자신감과 경기력으로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박 감독은 "특히 올해 도쿄올림픽에서는 혼성전이 추가돼 한국 양궁 최초 남녀 3관왕 탄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전 종목 석권을 목표로 선수들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양궁 국가대표 선수단을 맞이하는 신안군도 적

극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사계절 꽃피는 천사의 섬' 방문을 환영한다. 선수들의 안전은 물론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심석희 '완벽 부활'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서 1위
2년만에 태극마크 달고 베이징행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심석희(서울시청)가 2년 만에 태극마크를 달고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나서게 됐다.

심석희는 9일 서울 태릉 빙상장에서 열린 2021-2022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2차 선발대회 마지막 날 열린 여자 1000m에서 1분28초198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고, 여자 1500m 슈퍼파이널에서는 2분23초344로 4위에 올랐다. 전날 열린 여자 500m에서 1위, 1500m에서 3위를 차지한 심석희는 이로써 2차 대회 총점 89점을 획득했고, 1, 2차전 선발전 종합 점수 99점으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최민정(성남시청)과 1, 2차전 종합 점수에서 동점을 이뤘으나, 2차전 성적 우선 원칙에 따라 심석희가 정상에 올랐다.

1, 2차 대회로 두 차례 치러진 이번 선발전에서는 각각 500m와 1000m, 1500m, 1500m 슈퍼파이널 4종목씩이 치러졌고, 선수들은 각 종목 순위에 따른 점수를 받았다. 1차(50점)와 2차대회(50점) 종합 점수를 합산해 남녀 1~8위의 선수들 총 16명이 2021-2022 시즌 국가대표로 발탁됐다. 심석희는 2년 만에 국가대표로 선발돼 태극마크를 되찾았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그는 이후 힘겨운 시기를 겪었다. 허리와 발목 부상까지 겹쳐 2019년에는 태극마크를 반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났다. 지난해 1월 서울시청에 입단한 그는 실업 무대에서 다시 몸을 끌어올렸고, 이번 선발전에서 완전한 '부활'을 알렸다. 여자부 2위는 최민정이 차지했다. /연합뉴스

코로나에 무너진 한국 레슬링 올림픽 출전권 추가 획득 실패

김민석·류한수 2명만 확보...역대 최소

한국 레슬링 대표팀이 도쿄올림픽 출전권 추가 획득에 실패했다.

정한재(국군체육부대)는 9일(한국시간)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레슬링 세계 쿼터대회 남자 그레코로만형 60kg급 준결승에서 아르메 멜키안(아르메니아)에게 2-5로 석패해 체급별 2장이 걸린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지 못했다. 이로써 이번 대회에 출전한 레슬링 대표팀은 한 명도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지 못했다. 올림픽 3회 연속 메달 획득에 도전했던 김현우(삼성생명) 역시 경기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도쿄올림픽 출전이 무산됐다. 세계 쿼터대회에서 출전권을 획득하지 못한 한국 레슬링은 단 두 명의 선수를 도쿄올림픽에 파견하게 됐다. 올림픽 아시아 쿼터대회에서 출전권을 딴 남자 그레코로만형 72kg급 강판 류한수(삼성생명), 남자 그레코로만형 130kg급 김민석(울산남구청)이 도쿄올림픽에 출전한다. 이는 1952년 헬싱키 올림픽(2명 출전)과 더불어 한국 레슬링 역사상 올림픽 선수단 최소 규모다. 최악의 결과는 예견돼 있었다. 대표팀은 세계 쿼터대회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면서 훈련을 거의 하지 못했다. 한국은 세계 쿼터대회에 코치진 등을 포함해 총 23명을 파견했는데, 이 중 18명(8일 현재)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선수들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몸 상태를 추스른 뒤 음성 판정을 받고 대회 출전을 강행했지만, 올림픽 쿼터 획득은 역부족이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비와 당신의 이야기
2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내가 죽기를 바라는 자들
3관	명탐정 코난: 비색의 탄환 내가 죽기를 바라는 자들
4관	더 스파이
5관	크루즈 패밀리: 뉴 에이지 더 스파이 극장판 공순아: 장난감나라 대모험
6관	비와 당신의 이야기
9관	더 스파이, 내일의 기억 극장판 바다 탐험대 육토티: 불의 고리 대폭발
7관	세네커플 내일의 기억, 아이들은 즐겁다 학교 가는 길
8관	세네커플 미나리, 명탐정 코난: 비색의 탄환 어른들은 돌리요